

‘여·야·의·정 협의체’ 첫발

“내달 말까지 결과 도출할 것”… 민주당·전공의 단체는 불참

한동훈 “민주당 참여 언제든 환영”
매주 일요일 전체회의 열어 논의

대한전공의協 “당사자 없이 대화
의대모집 정치 등 입장부터 밝혀야”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에 참여 없이 첫발을 땀 가운데,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매주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3선의 이만희·김성원 의원,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한국외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이사장, 양은해 KAMC 정책연구위원장이 함께했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동훈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협의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체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이고 방법은 소통과 대화”라며 “다만, 아직 협의체에 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협의체는 민주당이 제일 먼저 말을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여기 있는 모두가 민주당의 참여를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수련병원의 진료 공백으로 환자 여러분이 겪으신 불안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또한 중요한 시기에 교육과 수련 현장을 떠난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이 상황이 해결돼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절박함 역시 협의체 참여의 절박한 이유”라며 “우리는 협의체 참여에 원칙으로 제시한 여러 현안들이 진솔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 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 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드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라며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 재정 10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 30조원을 투자

할 계획이다.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의료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것에 의미를 두고 정부, 의료계, 당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라며 “첫 회의이니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어떻게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협의체는 매주 일요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주중에 소위원회를 열어 의정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의

요청 사항에 대해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 입대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협의체가 12월말까지 기한을 두고 있지만 가능한 12월 22~23일 전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체 출범 소식에 자신의 사물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대표는 전공의와의 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모집 정치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여야의 정이 여러 논의를 하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난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출범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지지율 ‘최저’, 부정평가는 ‘최고치’ 경신

긍정평가 22.3%, 부정 75.1%
취임 이후 지지율 최저치 기록
담화·기자회견, 기대치 하회

윤석열대통령(사진) 지지율(국정수행 긍정평가)이 2주 연속 20%대 초반을 기록하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취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22.3%, 부정평가가 75.1%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에 비해 0.1%포인트(p) 내린 수치로, 1주 만에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한 셈이다. 부정평가도 전주 대비 0.9%포인트 오르며 종전



최고점(74.2%)을 제치며 최고점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작심하고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기대한 것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지율 자체는 홍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간 지지율은 5일 21.0%, 6일 21.4%였고, 7일에는 23.0%, 8일 23.2%를 기록했다. 지난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주 후반 소폭 오른 것이다. 그러나 지지율이 소폭으로 움직인 것을 보면, 기자회견이 여야 안팎의 쇄신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권역별 지지율은 수도권에서 내리고 대구·경북(TK)에서 올랐다. 서울 지지율은 전주 대비 2.7%포인트 내린

22.2%, 인천·경기는 1.5%포인트 내린 20%, 대전·세종·충청 지지율은 2.9%포인트 내린 18.4%로 나타났다. 반면 TK 지지율은 전주(30.2%) 대비 7.0%포인트 상승한 37.2%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TK 지지율 상승에 대해 “민심에 귀 기울이며 속도감있게 쇄신하는 모습보여드리겠다”고 짧은 입장만 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총 통화 시도 7만6262명 중 2516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syj@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14일 ‘김건희 특검’ 수정안 제출

주가조작, 공천·선거개입 의혹 국한 제3차 추천방식 포함… 與 이탈 유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 축소 및 제3차 추천권한을 담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수정안은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수사 대상은 13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된다.

이어 “제3차 추천(요구)을 수용해 제3차 추천방식을 포함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제출하며 수사 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택행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등 총 13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제출한 바 있다.

그간 민주당은 개별 특검법과 상설 특검까지 추진하며 김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여당에서 의미있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자 수사 대상을 좁히고 제3차 추천방식을 포함해 여권의 이탈을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특검 수사 범위를 좁힌 이유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국정농단, 선거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국민통합위, 경력단절 등 여성 사회문제 논의

오는 15일 ‘국민통합 컨퍼런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가 오는 15일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11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로얄파크 컨벤션파크홀에서 개최된다. 우리 사회의

여성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는 것이 국민통합위의 설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월 국민통합위 3기 출범식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딥페이크 범죄 등 여성 안전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치학자 김지윤 박사가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

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뒤, 1세션 ‘여성의 경력단절과 가족돌봄’, 2세션 ‘AI(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사회안전’ 발제 및 토론이 이어진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여성이 돌봄의 부담과 경력 단절의 불안에서 벗어나 개인적 성취와 가정의 행복을 동시에 누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양성평등 실현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만큼 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